



# 미국 아마존 노조 대표권 승인 실패와 그 배경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

## ■ 머리말

최근 미국 노사관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아마존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NPR 기사에 따르면,<sup>1)</sup> 앨라배마주 베서머(Bessemer)의 아마존 창고에서 진행된 소매·도매·백화점노동조합(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 이하 'RWDSU') 대표권 승인 투표 결과 노동자 738명이 찬성한 반면, 1,798명의 노동자는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투표는 그 과정에서부터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sup>2)</sup> 노조 대표들은 이번 투표 과정에서 보인 아마존의 여러 방해 공작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 몇몇 인사들도 이에 동조했는데, 특히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임원 급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노동 관행 관련 논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노조에 반대하도록 위협했다는 노조

1) NPR(2021.4.9), "It's A No: Amazon Warehouse Workers Vote Against Unionizing in Historic Election",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npr.org/2021/04/09/982139494/its-a-no-amazon-warehouse-workers-vote-against-unionizing-in-historic-election>

2) The New York Times(2021.4.9), "Union Loss May Bring New Phase of Campaign Against Amazon", Retrieved on April 21, 2021, <https://www.nytimes.com/2021/04/09/business/economy/amazon-labor-unions.html>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노조와 미디어에서 노동자에게 반아마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7주에 걸쳐 진행된 투표 기간 동안 일부 유권자의 적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는데, 노조에 따르면 전체 3,215표 중 사측이 이의제기한 표는 400표 가량이 다.<sup>3)</sup>

투표과정에 대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그에 앞서 이번 투표의 압도적 결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놀라운 점은 최근 정치적으로 노동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노조 대표권 승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2020년 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 친화적 공약을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삼았으며, 이번 아마존 노조 대표권 승인 국면에서도 우회적으로 노조를 지지한 바 있다. 정권교체 후 새로운 행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힘을 받기가 쉬웠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마존에서의 최초 노조 대표권 승인은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수의 베서머 노동자가 사측에 지지를 보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또 향후 미칠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앨라배마주의 정치색이 보수적이고 다소 반노조 성향을 보여 왔다는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아마존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 과정 및 그 결과를 둘러싼 여러 배경과 요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 아마존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 논쟁

우선, 이번 투표 과정에서의 양측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마존은 줄곧 노조 없이도 노

3) Politico(2021.4.9), "Union Defeat at Amazon Warehouse Turns Spotlight To the Hill",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politico.com/news/2021/04/09/amazon-alabama-union-drive-defeat-480581>

동자의 이익을 상당 부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존 홈페이지에 따르면,<sup>4)</sup> 아마존은 전일제 및 파트타임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 15달러의 시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일제 노동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돌봄 혜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등을 강조하며, 아마존이 이미 노동자에게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CNN의 인터뷰에 따르면,<sup>5)</sup> 몇몇 아마존 노동자는 살인적인 업무 속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10시간 근무에 겨우 2회의 휴식시간을 가지며, 사실상 로봇처럼 일하기를 요구받는다고 주장했다. 3월 17일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베퍼머 창고 노동자 제니퍼 베이츠(Jennifer Bates)는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프트는 길고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시당한다. 그들은 우리를 그저 또 하나의 기계로만 여기는 것 같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아마존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그 이익을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독식한 데 반해,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임금 및 혜택, 특히 팬데믹 기간의 위험수당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 역시 노조 조직 시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측과 노동자의 상반된 입장은 노조 대표권 승인 투표 과정에서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사실 아마존 측이 노조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일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아마존이 미국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번 대립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마존은 현재 130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 50만여 명은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 고용되었다. 또한 투표 과정에서 아마존은 노골적으로 반노조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으로 이는 사측의 입장을 완전히 공개해도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노조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2배나 훨씬 넘었던 압도적인 결과는 향후 노동조합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4) <https://www.aboutamazon.com/workplace/employee-benefits>

5) CNN(2021.4.23), “The Union Loss at Amazon is Another Sign Big Companies Have Too Much Power”, Retrieved on April 24, 2021, <https://edition.cnn.com/2021/04/23/perspectives/amazon-union-vote-workers/index.html>

## ■ 최근 아마존 및 관련 기업에서의 노조 조직 노력

이번 투표는 2014년 델라웨어주 아마존 물류창고의 기술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안을 부결시킨 이래 아주 오랜만에 진행된 아마존 창고 작업장의 노조 대표권 승인 투표였다.<sup>6)</sup> 당시 델라웨어 기술 노동자들은 국제기계항공우주노조(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이하 'IAMAW')와 노동조합 조직을 시도했으나 사측의 압박과 반노조 컨설턴트의 전략 속에서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반노조 성향이 강한 지역인 앨라배마주에서 다시 한번 아마존 노조 조직 시도가 일어났다. 창고를 연 지 얼마 안 된 2020년 여름부터 몇몇 베서머 창고 노동자가 RWDSU와 접촉하여 살인적인 업무 할당량 등을 언급하며 아마존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해고에 취약한 상황을 알리려 애썼고 그 노력이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 투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미 소매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노조 조직 시도와 사측의 저지,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 바 있다. 바로 월마트의 사례이다. 월마트는 2000년 텍사스 지점 정육사들이 노조 조직을 추진하자 다른 지점의 정육사 직종을 없애버린 바 있고, 5년 후 퀘벡 월마트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시도할 때에는 점포를 폐점하기도 했다.<sup>7)</sup>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도 노조 조직에 실패한 전례로 인해 어떤 면에서 이번 아마존에서의 노조 조직 시도는 더욱 절박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아마존 노조 조직 시도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노동사학자들은 현재 시기가 팬데믹 상황과 인종차별 반대운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sup>8)</sup>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호장

6) NPR(2021.4.9), "It's A No: Amazon Warehouse Workers Vote Against Unionizing in Historic Election",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npr.org/2021/04/09/982139494/its-a-no-amazon-warehouse-workers-vote-against-unionizing-in-historic-election>

7) The New York Times(2021.4.9), "Union Loss May Bring New Phase of Campaign Against Union", Retrieved on April 21, 2021, <https://www.nytimes.com/2021/04/09/business/economy/amazon-labor-unions.html>

8) CNBC(2021.4.24), "Explained: How Amazon Fought and Won Union in Alabama", Retrieved on April 25, 2021, <https://www.cnbc.com/business/explained-how-amazon-fought-and-won-union-in-alabama-9037801.htm>

비나 대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통해 인종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된 목소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베서머 창고 노동자 대부분이 흑인이라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와 맞물려 이번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노조 조직에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 ■ 왜 실패했는가?

그렇다면 아마존 노동조합 조직은 왜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을까? 먼저, 노조 조직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반노조적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sup>9)</sup> 이는 작업장 노동자가 아닌 노조활동가는 작업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1992년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럽거스 대학 레베카 기반(Rebecca Givan) 교수는 “우리는 (노조 조직에 있어) 노사 간 균형이 얼마나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현행 노동법하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sup>10)</sup> 이렇듯 현행 미국 법률의 경우 직장 내 노동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대표자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아마존에 창고 노동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조합과 교섭하게 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노조가 단 한 명의 조합원만을 대표하더라도 작업장에서 교섭할 권한을 갖고 있다.<sup>11)</sup>

9) CNN(2021.4.23), “The Union Loss at Amazon is Another Sign Big Companies Have Too Much Power”, Retrieved on April 24, 2021, <https://edition.cnn.com/2021/04/23/perspectives/amazon-union-vote-workers/index.html>

10) NPR(2021.4.9), “It’s A No: Amazon Warehouse Workers Vote Against Unionizing in Historic Election”,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npr.org/2021/04/09/982139494/its-a-no-amazon-warehouse-workers-vote-against-unionizing-in-historic-electio>

11) The Conversation(2021.4.23), “‘They Track Our Every Move’: Why the Cards Were Stacked Against a Union at Amazon”, Retrieved on April 24, 2021, <https://theconversation.com/they->

투표 기간에 아마존 측은 공개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을 저지하려고 했다. 회의를 소집하거나 화장실 내 홍보문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 조직에 반대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아마존 작업장 내 우편함 설치를 주장해 투표 감시 논란을 빚었고, 창고 외곽의 차량 신호등을 통제해 노동자와 노조활동가 간의 접촉을 방해한다는 논란도 일으켰다. 물론 이 모든 행위가 아마존 사측의 의도로 빚어졌는지, 또 얼마나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마존 측이 공개적으로 노조 조직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분명하다. 그들의 반노조 메시지는 때로는 은밀하면서도 때로는 노골적으로 노동자에게 전달되었다. 이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로 이러한 공개 캠페인 전략이 노동자에게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 사회에서 노조는 사측의 반대하에서는 조직되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용자의 힘이 세면 셀수록 조직 가능성이 더욱 요원하다는 점이 이번 투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아마존은 노동자에 대한 감시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소셜 미디어에 노조에 대한 지지를 표한 노동자는 회사에 의해 스파이(spooks)로 낙인찍혀 근무 이외에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컴퓨터를 통해 감시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업무 속도가 더디거나 업무 소요 시간이 길 경우 징계를 받거나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에 더해, 친노조 성향의 노동자가 해고된 바 있는 과거 이력은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위협거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가 단순히 노동자의 굴복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어떻게 노동자가 아마존의 전략에 굴복함을 넘어 능동적으로 동조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조에 반대하는 아마존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노조 없이도 아마존은 이미 노동자에게 상당한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조가 조직될 경우 이러한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히더 녹스(Heather Knox) 아마존 대변인의

track-our-every-move-why-the-cards-were-stacked-against-a-union-at-amazon-159531  
12) The Conversation(2021.4.23), “‘They Track Our Every Move’: Why the Cards Were Stacked Against a Union at Amazon”, Retrieved on April 24, 2021, <https://theconversation.com/they-track-our-every-move-why-the-cards-were-stacked-against-a-union-at-amazon-159531>

다음 발언에도 나타난다.<sup>13)</sup> “(노조를 거치지 않은 사측과 노동자 간의) 직접 대화는 노동자의 의견, 질문, 우려 사항을 직접 경영진에 전달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업환경에 필수적이다.” 즉, 노조를 거칠 것 없이 개별 노동자의 고충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접수하고 해결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작업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개적으로 진행된 아마존의 노조 반대 캠페인에는 아마존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드러나 있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복리후생에 덧붙여, 15달러의 최저임금(앨라배마주 최저임금의 2배)을 통해 주변 지역 노동자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아마존의 홍보 전략은 노동자에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노동자가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에 만족한 데 반해, 노조의 대응전략은 노동자의 찬성표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듯하다. CNBC의 인터뷰는 노조의 대응 부족을 문제로 꼽고 있다.<sup>15)</sup> 아마존의 한 직원은 아마존이 노조 조직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여 노동자에게 설득과 위협 메시지를 함께 보낸 데 비해, 노조로부터는 노조 조직을 통해 얻을 이익이나 노조가 어떻게 노동자를 도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직원은 아마존의 처우가 다른 직장에 비해 훌륭한 편이며, 특히 아마존의 숙련도 향상 프로그램은 창고 노동자의 이직과 관련한 교육비 일부를 감당한다는 점에서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즉,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아마존에서는 제공한 반면, 노조는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기사<sup>16)</sup> 역시, 아마존 노동자가 이미 업계 내에서 선도적인 급여와 혜택을 제공받는 상황에서,

13) The Washington Post(2021.4.7), “The Union Drive at Amazon Signals a Potential Sea Change for the Labor Movement. Will It last?”,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1/04/07/amazon-union-election-alabama-white-house-labor/>

14) The New York Times(2021.4.9), “Amazon Workers Vote Down Union Drive at Alabama Warehouse”,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nytimes.com/2021/04/09/technology/amazon-defeats-union.html>

15) CNBC(2021.4.24), “Explained: How Amazon Fought and Won Union in Alabama”, Retrieved on April 25, 2021, <https://www.cnbc.com/2021/04/24/explained-how-amazon-fought-and-won-union-in-alabama-9037801.html>

16) Bloomberg(2021.4.22), “Amazon Workers Spoke. It’s Important to Hear Them”, Retrieved on April 24, 20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22/amazon-workers-spoke-it-s-important-to-hear-them>

조합비를 지불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 조직에 반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뉴욕타임스의 인터뷰는 흑인 인권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베서머 창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 노동자와 연대하려던 노조활동가의 전략이 유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7)</sup> 즉, 작업장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 노동자에게 인권 운동은 작업장 밖 사회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물론 이들 역시 크고 작은 노동 이슈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노조 없이 사측과 직접 대화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아마존의 노조 반대 캠페인에는 대표권을 획득하려는 노조가 양계업 노동자의 조직으로서 창고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어렵다는 점, 노조가 파업을 주도하여 직원이 누리던 기존 혜택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sup>18)</sup>

이번 사례에서 몇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노조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운동가와 아마존 노동자 간의 연결고리가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다. 아마존은 기존 노조와 노동자 간의 관계가 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둘째, 아마존 노동자는 노조 조직을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당위적 차원보다는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목적에는 당장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해주려는 점도 있지만 사측에 맞서는 연대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한데, 아마존 노조 조직 과정에서 후자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외부 조직 활동가가 가진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노동자에게 있어 외부의 노동조합보다 이해당사자인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사례를 확대해 미국의 전반적인 미조직 노동계층이 노동조합을 도외시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미국 노동자 중 조합원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미조직 노동자 중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는 이들의 비율은 1980년대 33%에서 2017년에는

17) The New York Times(2021.4.9), “Amazon Workers Vote Down Union Drive at Alabama Warehouse”,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nytimes.com/2021/04/09/technology/amazon-defeats-union.html>

18) CNBC(2021.4.24), “Explained: How Amazon Fought and Won Union in Alabama”, Retrieved on April 25, 2021, <https://www.cnbc.com/business/explained-how-amazon-fought-and-won-union-in-alabama-9037801.htm>

48%로 늘어났다.<sup>19)</sup> 즉,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는 미조직 노동자의 비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에 좋은 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 ■ 향후 전개 방향

그렇다면 이후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까? 우선 당장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주도하에 관련 법안이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레베카 기반 교수는 이번 결과로 말미암아 “고용주가 반노조 메시지를 전파할 자유”를 포함해 고용주가 가지는 이점 등과 관련한 법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sup>20)</sup> 실제로 「단결권보호법(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이하 ‘PRO Act’)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속에 3월 하원을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은 노조가 비조합원으로부터도 단체교섭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노동자를 대표하기 위한 과반수 득표 요건을 피하게 하고, 노조 조직을 방해하는 회사 차원의 회의를 금지하며, 조직 활동가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sup>21)</sup> 법안 찬성론자들은 이를 통해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데 반해, 법안 반대론자들은 노조 조직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PRO Act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sup>22)</sup> 또한, 많은 노조 지도자들은 의회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PRO Act를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노동자가 작업장(work site)뿐 아니라 회사 전체나 산업 전반에 걸

19) The Conversation(2021.4.23), “‘They Track Our Every Move’: Why the Cards Were Stacked Against A Union at Amazon”, Retrieved on April 24, 2021, <https://theconversation.com/they-track-our-every-move-why-the-cards-were-stacked-against-a-union-at-amazon-159531>

20) NPR(2021.4.9), “It’s A No: Amazon Warehouse Workers Vote Against Unionizing in Historic Election”,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npr.org/2021/04/09/982139494/its-a-no-amazon-warehouse-workers-vote-against-unionizing-in-historic-election>

21) The Conversation(2021.4.23), “‘They Track Our Every Move’: Why the Cards Were Stacked Against A Union at Amazon”, Retrieved on April 24, 2021, <https://theconversation.com/they-track-our-every-move-why-the-cards-were-stacked-against-a-union-at-amazon-159531>

22) Politico(2021.4.9), “Union Defeat at Amazon Warehouse Turns Spotlight To the Hill”,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politico.com/news/2021/04/09/amazon-alabama-union-drive-defeat-480581>

쳐 더욱 수월하게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뿐만 아니라, 노조 조직 전략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노조 조직 및 노동운동을 투표와 같은 제도적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문제 제기이다. 대표적인 예로 몇몇 비영리 단체가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아테나(Athena)’라는 연합을 결성해 아마존의 독점적이고 착취적인 관행을 고발한 바 있다.<sup>24)</sup> 또, 뉴욕시립대학교의 루스 밀크먼(Ruth Milkman) 교수는 ‘공중전+지상전 모델’을 통해 파업 등 작업장에서의 행동(지상전)과 노동문제를 공공 캠페인을 통해 외부로 드러내고 유명인사의 지지를 끌어내 연대(공중전)하는 방식을 조화시키는 대안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투표와 관계없이 외부 조직과의 연계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 맺음말

분명 노동계에 있어서 아마존 노조 대표권 승인 실패는 뼈아픈 결과였다. 베서머 창고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아마존 노조를 만들고자 했던 노동계의 꿈을 실현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투표 경험 자체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sup>25)</sup> IAMAW의 빈센트 아데오(Vincent Addeo)는 “노조 대표권 승인 투표 반대 티셔츠를 입었던 사람이 회사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를 몸소 겪으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심지어 노조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반노조 캠페인이나 투표 이후 사용

23) The New York Times(2021.4.9), “Union Loss May Bring New Phase of Campaign Against Union”, Retrieved on April 21, 2021, <https://www.nytimes.com/2021/04/09/business/economy/amazon-labor-unions.html>

24) The New York Times(2021.4.9), “Union Loss May Bring New Phase of Campaign Against Union”, Retrieved on April 21, 2021, <https://www.nytimes.com/2021/04/09/business/economy/amazon-labor-unions.html>

25) The Washington Post(2021.4.7), “The Union Drive at Amazon Signals a Potential Sea Change for the Labor Movement. Will It last?”,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1/04/07/amazon-union-election-alabama-white-house-labor/>

자에 대한 실망 등의 경험이 향후 노조 조직에 밀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마존 노조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비단 아마존에 고용된 이들뿐 아니라 아마존의 사업 영역에 연계된 이들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아마존의 영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sup>26)</sup> 효율성을 중시하여 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아마존의 노동 관행은 미국의 대표 모델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이 노동계의 최우선 과제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CNN은 노조 조직을 통한 노동자의 목소리 확대가 충성도 상승, 이직률 하락,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기업에도 이로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sup>27)</sup>

결국 노동조합 조직에 있어 관건은 작업장 내부의 다수 노동자와 외부 조직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PRO Act와 같은 법을 통해 이들 사이의 접점을 확대·보장하는 한편, 산업 단위의 노동조합 및 연대 운동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작업장 차원의 이슈를 산업 차원 혹은 범사회적 이슈로 확장하는 것이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LI**

26) The New York Times(2021.4.9), “Amazon Workers Vote Down Union Drive at Alabama Warehouse”, Retrieved on April 22, 2021, <https://www.nytimes.com/2021/04/09/technology/amazon-defeats-union.html>

27) CNN(2021.4.23), “The Union Loss at Amazon is Another Sign Big Companies Have Too Much Power”, Retrieved on April 24, 2021, <https://edition.cnn.com/2021/04/23/perspectives/amazon-union-vote-workers/index.html>